

# 구세주가 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박했다는 것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신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나 풀이나 모든 곡식이나 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들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영의 물질을 곡식을 통하여 취하는 고로 그런고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모든 나무나 풀 속에 있으며 곡식 속에도 있으며, 특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생명의 물질인 하나님의 영을 배출하는 고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지고 모든 곡식 위에 떨어지고 나무에 떨어지는 고로 이제 나무가 살고 곡식이 사는 것이요 모든 짐승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없는 세계에서는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주국에서는 달나라 별나라를 가봐도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왜 없는지를 그들이 모릅니다. 그게 바로 지구 밖에 있는 항성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지구 땅 위에서만이 생명체가 많이 있으며 날짐승도 살아서 날아다니고 또 짐승들도 이제 살아서 산에서 뛰어다니고 이제 또한 모든 나무나 풀이나 곡식들이 살아서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바로 하나님의 신이 모든 만물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세상 첨단 과학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학문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별나라에 우주인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

체가 우리 지구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생명체가 없다면 지구 땅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국에서 달나라 별나라를 가봐도 생명체를 찾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어째서 그럴까? 하고서 오염되지도 아닌 달나라 별나라에 생명체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왜 오염되지도 아니한 달나라 별나라에는 이제 그대로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우주인들이 있다고 이제 외국에서 말하고 미국에서 말하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주인이라 하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우주인이 생명체이고 바로 달나라 별나라에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신은 바로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만이 함유되어 있고 모든 이제 풀이나 나무나 짐승들이나 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달나라 별나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고로 생명체로서의 우주인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되는 것이 종교의 목적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고 하고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고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요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야 그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이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 목적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예수는 자기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믿기만 믿으면 그것도 '달아놓고 믿어라'라고 그랬습니다. 달아놓고 어떻게 믿



구세주 조희성님

을 수 있어요? 그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신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요, 예수라는 사람은 전혀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수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말을 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나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신이 함께하는 고로 그런 헛소리를 한 자입니다.

### 점점 하늘나라가 임박하고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의 말은 마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편 6절)"라고 했습니다. 지존자가 하나님을 가리킨 말이므로 '지존자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 전부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는 예수는 이제 그대로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 성경을 얼마나 읽지 않고 몰랐으면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알았다면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을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의 성경은 예수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당이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말했는데, 천당이라는 것은 말세에 구세주가 와서 천당을 건설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건설한 천당이 곧 지옥이라는 것도 예수가 몰랐습니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그 천당은 하나님들이 사는 세계인데, 바로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데 이제 태양빛의 몇십 배나 밝은 빛이요 몇십 배나 뜨거운 빛인 고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뜨거워서 못 견디고 필멸 뛰는 그러한 세계이고로 죄인과 마귀는 필멸 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그 빛을 받으면 말할 수 없이 쾌락을 느끼고 고로 그런고로 그 이제 하나님의 천당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천당은 행복을 누리는 곳이요 쾌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고로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 그랬습니다. 이제 즐거운 '락(樂)'자! 이제 극락이라는 건 그 즐거움이 한도 없이 이제 그대로 그 '락'의 끝을 말하는 것, 즐거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극락세계는 하나님이나 누리는 것이지, 인간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하나님이나 누릴 수 있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석방시켜서 극락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도록 하는 것이 구세주의 사명입니다. 구세주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바로 천당을 건설하고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 만들어서 영원무궁토록 그 극락세계에 하늘나라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고로 점점 하늘나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공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바로 하늘나라 천당에서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늘나라 천당이라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은, 구세주가 와 있는 것을 보아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당은 구세주가 만드는 곳이요 이제 구세주가 바로 천당에 들어보내 주는 주인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 들어가

려면 구세주가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죽을죄

천당이라고 하는 그 극락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구세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우선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려면 나라는 걸 이빠해서 안 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를 무척 사랑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죽을죄입니다. 그 죄가 자주 쌓이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면 바로 마귀가 점점 약해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계속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밀실에서 '나를 이겼다' 그랬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니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그 밭을 개간하고 또 바위를 오 함마로 치고 함들어서 땅이 쏟아지고 더 이상 힘들어서 오함마를 들 기운이 없는 데도 사력을 다해서 들고 오함마로 바위를 쳐서 깨서 부시고 그 바위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우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우니까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려면 나를 미워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려면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이제 그대로 미워하고 이제 나를 욕하고 하면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고, 나라는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나쁜 놈이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악질분자다! 하면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 아가야 나라는 것이 죽게 돼 있습니다.\*

2024.1.13. 본부제단 예배시간에 방영된 말씀

☞재사칭 <https://www.victor.or.kr/sub401/240113-020322/>

##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5) 모세가 헐몬산에 올라 돌제단을 쌓다

### (5) 모세가 헐몬산에 올라 돌제단을 쌓다

(지난호에 이어서)  
야셀을 점령한 후, 곧장 북진하여 압 북강을 건너 길르앗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40년 9월(기슬르월) 중순에 이스라엘의 군대 가온데 갖자손에 속한 군대가 앞장서서 아르북강을 건너 바산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스다롯 성읍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에드레이까지 내려왔지만 대패하고 맙니다. 창세기 49장 5장과 19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시몬지파 군대와 갓지파 군대는 에드레이 성읍에 있던 노인 과 부녀자를 짓밟아 죽이고 심지어 유아까지 무참히 살육하였지만, 그것제지파의 군대는 그 성안에 거하는 아모리인을 내쫓아내어 멀리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신명기 3장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7절: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절: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헐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살육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족이 되는 레아 자식의 후손들의 손에 아스다롯 성읍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성읍은 이스라엘의 본지가 되는 라엘이 낳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들에게 넘겼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군대는 에드레이 성읍에서 곧장 북진하여 아르북강을 건너 바산 왕 옥이 거하던 아스다롯을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산 왕 옥이 지배했던 아스다롯 성읍에서 북쪽으로 50킬로미터쯤에 있는 헐몬산까지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가 통솔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만 모두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 헐몬산(Mount Hermon) - '헐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가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사113:3)).

출애굽 40년 10월(데벳월)초에 모세는 수합(단의 아들) 자손 암미엘(Ammiel-단: 내 백성은 하나님이라)이 낳은 첫째 아들 요글리(Yogli: 여호와께서 드러내시 기뻐)와 요글리의 아들로서 단지파의 수장 북기(Bukki: 정통한, 민수기 34:22)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요나단(모세의 손자) 제사장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명기 3장 9절 (헤르본 산을 시몬 사람이 시몬이라 부르 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 하나님의 산 '바산(골란 고원)'과 갈릴리 지역에 산재한 고인돌과 옥 장신구.

는 라이스(Laish 또는 레센(Leshen)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예정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직후에 게르솜의 아들이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Jonathan: 여호와께서 주셨다)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것은 장차 단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6절 (요나단) 제사장이 그들(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라이스를 향해)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레바논의 라이스에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가 한반도의 백두산(해발고도: 2,744m)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산에서 천체를 지내고 히브리어로 새긴 지식을 세워 무사히 신의 나라에 도착했음을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라이스 지명에는 '사자(Lion)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특히 단지파를 두고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하고 민간의 왕이 배출될 구세주 민족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여러 봉우리가 한데 어울려 있는 산이로다 16절: 너희 봉우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바산의 헐몬을 시가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